

I. 서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김민지, 조한익*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더불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동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2013년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24명의 3년간의 종단자료이다. 측정도구는 한국 종단연구 2013에서 제작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척도이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성을 보였으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는 교차지연모형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동시효과로 설정했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상호작용 동시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교차지연모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종단적 인과관계

*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민지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Tel: 055-772-2132, E-mail: h1652@gnu.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생활 속에서 친구나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진로를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성숙하게 된다. 미래의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진로선택은 개인이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식이란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그 속에 속해 있는 나와 같은 구성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식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식이란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이며 진정한 휴머니즘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물질만능주의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으며(김남선, 우룡, 1995),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6).

공동체의식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핵심과업으로 이 시기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다(구지운, 김유나, 2016).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이 탐색한 일의 세계와 자신을 보다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김사라형선, 2013; Holland, 1997).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김영숙, 조한익, 2016) 연령,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박효희, 성태제, 2008)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진로관련 연구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로성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개념(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 2007)으로서 진로 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업태도,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진로행동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개념화된다(김양분 외, 2014).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일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신체적 특징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은 개인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개인에 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최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이 생태학적인 요인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강가영, 장유미, 2013; 고관우, 남진열, 2011; 김선숙, 안재진, 2012; 김위정, 2016; 김종화, 유희철, 2009;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 2012; 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Pretty, Andrewes, & Collett, 199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이주희, 2011),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김영숙, 조한익, 2016),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동욱, 손원숙, 2014; 장희선, 윤정이 2016),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충기, 2001; 이상인, 2001;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면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Lucas, 1997),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진로관련 연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아직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기본이 되는 상호존중 기술이다. 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비록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스스로 진로 관련 고민을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과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고 가장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모야말로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가능성이 크다. 유정어, 이영선 및 박정민(2003)의 연구를 보면 진로선택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전체의 12.4%, 21.5%로 형제, 친구,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영숙과 조한익(2016)의 연구를 보면 진로정체감의 경우 외제적, 내제적 미래지향목표에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달라지는데 더불어 살아가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면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한다. 김태연(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이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박은정, 이유리 및 이성훈(2016)의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종단자료를 이용한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학생들, 즉 진로성숙 발달단계 중 성장기에서 탐색기로 진입하는 중학생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인과관계와 안정성을 파악하여 진로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여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 상호작용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서 안정적인가?

둘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이 지각한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5~중1자료를 활용하였다. 201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표본 7324명 중 7287명을 조사하였고, 2차년도에 7092명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였다. 3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진학 상황 파악자 중 유학, 사망, 신원 파악 불가자 등을 제외한 7051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동체의식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공동체의식은 참여의식 2문항, 타인배려 4문항이다. 문항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지수가 높음을 나타냈다.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공동체의식의 문항과 신뢰도

| 변인 | | 문항 | 신뢰도 | | | |
|-------|------|----------------------------------|------|------|------|------|
| | | | 1차 | 2차 | 3차 | |
| 공동체의식 | 참여의식 |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677 | .691 | .675 | |
| | |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타인배려 |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 .815 | .831 | .818 | |
| | |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 | | | |
| |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 | | | |
| | |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 | | | |
| | 전체 | | | .844 | .856 | .837 |

<표 2> 진로성숙도의 문항과 신뢰도

| 변인 | | 문항 | 신뢰도 | | |
|-------|-------|---|------|------|------|
| | | | 1차 | 2차 | 3차 |
| 진로성숙도 | 자기이해 |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 .923 | .923 | .930 |
| | |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 | | |
| | |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안다. | | | |
| | |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안다. | | | |
| | | 내가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 | | |
| | 진로계획성 |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 .914 | .906 | .910 |
| | |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 | | |
| | |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진로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 | | |
| | |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 | | |
| | | 나는 내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해 본다. | | | |
| 전체 | | | .938 | .935 | .937 |

2) 진로성숙도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기이해 5문항, 진로계획성 5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항구성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97-118.

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지수가 높음을 나타냈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부모와의 상호작용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학교 활동에 참가',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이나 휴가를 감',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운동을 함'에 대한 문항들이다. 문항구성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상호작용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의 지수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과 문항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문항과 신뢰도

| 변인 | | 문항 | 신뢰도 | | |
|-----------|--|-------------------------------|------|------|------|
| | | | 1차 | 2차 | 3차 |
| 부모와의 상호작용 | | 학교활동에 참가 | .692 | .693 | .682 |
| | |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 | | |
| | | 여행이나 휴가를 감 | | | |
| | |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운동을 함. | | |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 상호작용의 종단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김민규, 김주환, 홍세희, 2009).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 문항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유수경, 홍세희, 2004). FIML은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에 비해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종단연구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rbuckle, 2009). 모형에 대한 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모형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지수가 표본크기에 덜 민감해야하며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간명해야한다(홍세희, 2000).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χ^2 차이검증과 적합도지수를 고려하나 χ^2 차이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유숙경, 홍세희, 2004) 적합도 지수로 CFI, TLI, RMSEA를 이용하였다. 적합도를 해석할 때 Hu와 Bentler(1999)는 TLI의 경우는 .90 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또한 Brown과 Cudeck(1993), 홍세희(2000)에 따르면 TLI와 CFI는 상대적인지수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RMESA는 절대적합도로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표 4>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 평균(표준편차)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공동체의식 | 참여의식 | 3.928(.7918) | 3.950(.7469) | 3.854(.7654) |
| | 타인배려 | 3.785(.7043) | 3.833(.6830) | 3.930(.6558) |
| | 공동체의식 전체 | 3.858(.6734) | 3.892(.6475) | 3.893(.6331) |
| 진로성숙도 | 자기이해 | 4.169(.7516) | 4.132(.7192) | 3.979(.7461) |
| | 진로계획성 | 3.960(.8004) | 3.938(.7675) | 3.847(.7674) |
| | 진로성숙도 전체 | 4.065(.7155) | 4.035(.6848) | 3.913(.6946) |
| 부모와의 상호작용 |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2.507(.7005) | 2.490(.6864) | 2.247(.6719) |

III.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 검토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으로는 참여의식과 타인배려가 있다. 참여의식의 경우 1, 2차년도 평균에 비해 3차년도에서는 다소 감소하였고 타인배려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서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경우 조금 증가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전체의 평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 증가하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이 있고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평균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에 진로성숙도의 전체 평균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비해 평균의 수치는 다소 낮았으며 진로성숙도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치가 감소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참여의식, 타인배려,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관계에 대한 상관은 .130($p < .01$)에서 .538($p < .01$)까지 나타내며,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에 대한 상관은 .123($p < .01$)에서 .416($p < .01$)까지 나타내고 있다. 2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에 대한 참여의식, 타인배려,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관계에 대한 상관은 .121($p < .01$)에서 .515($p < .01$)까지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상관은 .121($p < .01$)에서 .538($p < .01$)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참여의식과 타인배려, 진로성숙도의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가 .10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가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Grimm & Yarnold, 2000). 1차년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와 2차년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2차년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서 공차한계는 .707~.955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는 1.047~1.41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741~.962로 분산팽창계수는 1.040~1.40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00 이하, 첨도는 7.00 이하이면 정상분포 곡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hou & Bentler, 1995).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 각각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왜도는 .009~.299, 첨도는 .035~.420으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5>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 변인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3차년도 | | | | | | | | |
|-----------|--------|--------|--------|--------|--------|--------|-----------|--------|--------|--------|--------|--------|--------|--------|--------|-----------|--------|--------|--------|--------|-------|
| | 공동체의식 | | | 진로성숙도 | | | 부모와의 상호작용 | | | 공동체의식 | | | 진로성숙도 | | | 부모와의 상호작용 | | | | | |
| | 참여의식 | 타인배려 | 전체 | 자기해 | 진로계획성 | 전체 | 참여의식 | 타인배려 | 전체 | 자기이해 | 진로계획성 | 전체 | 참여의식 | 타인배려 | 전체 | 자기해 | 진로계획성 | 전체 | | | |
| 1차년도 | 공동체의식 | 1.00 | | | | | | | | | | | | | | | | | | | |
| | 타인배려 | .637* | 1.00 | | | | | | | | | | | | | | | | | | |
| | 전체 | .912** | .857** | 1.00 | | | | | | | | | | | | | | | | | |
| | 진로성숙도 | .42** | .40** | .465** | 1.00 | | | | | | | | | | | | | | | | |
| 2차년도 | 공동체의식 | .44** | .373** | .457** | .313** | .332** | .361** | .182** | 1.00 | | | | | | | | | | | | |
| | 타인배려 | .344** | .498** | .463** | .281** | .325** | .329** | .130** | .639** | 1.00 | | | | | | | | | | | |
| | 전체 | .488** | .468** | .508** | .339** | .363** | .326** | .173** | .914** | .896** | 1.00 | | | | | | | | | | |
| | 진로성숙도 | .230** | .282** | .318** | .412** | .420** | .418** | .163** | .425** | .412** | .463** | 1.00 | | | | | | | | | |
| 3차년도 | 공동체의식 | .333** | .284** | .362** | .233** | .231** | .240** | .151** | .451** | .354** | .443** | .25** | .233** | .215** | .144** | 1.00 | | | | | |
| | 타인배려 | .216** | .307** | .381** | .235** | .226** | .229** | .123** | .350** | .481** | .408** | .277** | .318** | .324** | .121** | .585** | 1.00 | | | | |
| | 전체 | .371** | .377** | .416** | .332** | .311** | .357** | .155** | .465** | .463** | .513** | .315** | .342** | .358** | .150** | .908** | .822** | 1.00 | | | |
| | 진로성숙도 | .230** | .225** | .270** | .380** | .338** | .389** | .131** | .304** | .278** | .222** | .465** | .407** | .483** | .139** | .397** | .318** | .443** | 1.00 | | |
| 부모와의 상호작용 | .165** | .136** | .169** | .129** | .134** | .144** | .572** | .175** | .139** | .174** | .152** | .162** | .170** | .612** | .146** | .142** | .162** | .152** | .165** | .172** | 1.00 |
| 패도 | -.53 | -.229 | -.342 | -.739 | -.461 | -.519 | .09 | -.371 | -.06 | -.138 | -.369 | -.321 | -.363 | .067 | -.357 | -.173 | -.171 | -.463 | -.257 | -.253 | -.239 |
| 참도 | .224 | .015 | .132 | .420 | -.066 | -.044 | -.089 | -.030 | -.166 | -.240 | .153 | -.224 | -.186 | -.612 | .108 | -.174 | -.046 | .126 | -.145 | -.030 | -.433 |

*p<.05, **p<.01

2) 측정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각 시점마다 공동체의식의 참여의식과 타인배려, 진로성숙도의 자기이해와 진로계획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6> 측정모델의 검증

| 적합도지수 | χ^2 | df | p | IFI | CFI | RMSEA |
|-------|----------|----|------|------|------|-------|
| 1차년도 | 15.705 | 1 | .000 | .999 | .999 | .045 |
| 2차년도 | 7.032 | 1 | .008 | .999 | .999 | .029 |
| 3차년도 | 3.897 | 1 | .048 | .999 | .999 | .020 |

1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hi^2=15.705(p<.01)$ 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45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hi^2=7.032(p<.01)$ 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29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자료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chi^2=3.897(p<.01)$ 로 나타났으나 IFI=.999, CFI=.999, RMSEA=.02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 | 모형 | χ^2 | df | p | IFI | CFI | RMSEA |
|-----------|-----|----------|----|------|------|------|-------|
| 기저모형 | 모형1 | 2658.899 | 43 | .000 | .936 | .936 | .091 |
| | 모형2 | 2662.642 | 45 | .000 | .936 | .936 | .089 |
| | 모형3 | 2665.466 | 47 | .000 | .936 | .936 | .087 |
| | 모형4 | 3054.764 | 49 | .000 | .926 | .926 | .092 |
| 경로동일성 | 모형5 | 3795.689 | 51 | .000 | .908 | .908 | .100 |
| | 모형6 | 3814.347 | 52 | .000 | .908 | .908 | .099 |
| | 모형7 | 3814.354 | 53 | .000 | .908 | .908 | .098 |
| 오차공분산 동일성 | 모형8 | 3815.799 | 54 | .000 | .908 | .908 | .098 |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이 동일성들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되며 순서대로 검증해야 한다. 측정동일성이 만족해야만 경로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경로동일성이 만족되어야 오차공분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의 검증과정과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다. 모형2는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들에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들에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3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5는 모형4에 추가하여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6은 모형5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에서 공동체의식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7은 모형6에 추가하여 공동체의식에서 진로성숙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8은 모형7에 추가하여 진로성숙도와 공동체의식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 IFI, CFI, RMSEA 값을 살펴보았다. 모형1에서 모형8까지를 보면 모형 제약 전체를 걸쳐서 χ^2 값은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IFI은 대체로 .90에 가까운 적합도를 보이고 CFI는 .90 이상의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RMSEA는 .09 근처로 괜찮은 적합도 값을 보이고 있다. 모형들 간에 χ^2 , IFI, CFI, RMSEA의 변화량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 모형 비교 | $\Delta\chi^2$ | df | p | Δ IFI | Δ CFI | Δ RMSEA |
|---------|----------------|----|------|--------------|--------------|----------------|
| 모형2-모형1 | 3.743 | 2 | .154 | .000 | .000 | -.002 |
| 모형3-모형2 | 2.824 | 2 | .244 | .000 | .000 | -.002 |
| 모형4-모형3 | 254.485 | 2 | .000 | -.010 | -.010 | .005 |
| 모형5-모형4 | 740.943 | 2 | .000 | -.018 | -.018 | .008 |
| 모형6-모형5 | 18.658 | 1 | .000 | .000 | .000 | -0.001 |
| 모형7-모형6 | .007 | 1 | .933 | .000 | .000 | -0.001 |
| 모형8-모형7 | 1.445 | 1 | .229 | .000 | .000 | .000 |

<표 8>에서 모형 비교에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Delta\chi^2$ 를 통해 비교하였으나 χ^2 차이 값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heung과 Rensvold(2002)가 제시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97-118.

한 표집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Δ CFI값을 사용하여 추가적 모형비교를 하였다. Δ CFI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Δ CFI값을 살펴보면 .01을 초과하는 값이 없다. 따라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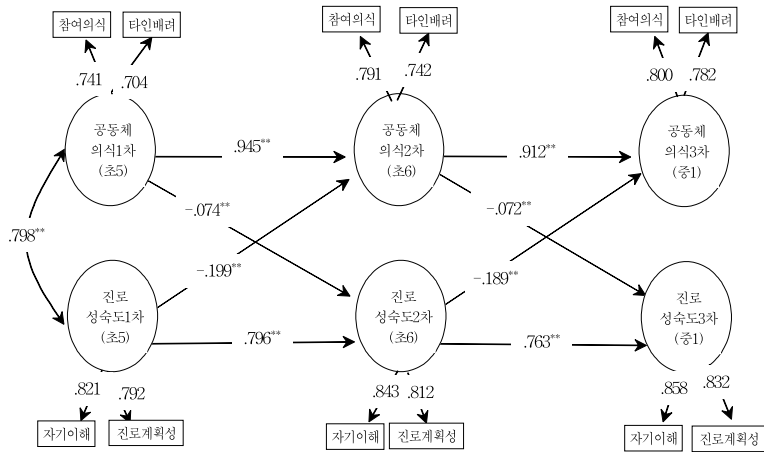
<표 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경로 검증

| 경로 | 비표준화계수(B)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β) |
|-----------------|-----------|------|------------------|
| 공동체의식1차→공동체의식2차 | .978** | .008 | .945** |
| 공동체의식2차→공동체의식3차 | .978** | .008 | .912** |
| 공동체의식1차→진로성숙도2차 | -.080** | .011 | -.074** |
| 공동체의식2차→진로성숙도3차 | -.080** | .011 | -.072** |
| 진로성숙도1차→진로성숙도2차 | .813** | .007 | .796** |
| 진로성숙도2차→진로성숙도3차 | .813** | .007 | .763** |
| 진로성숙도1차→공동체의식2차 | -.195** | .011 | -.199** |
| 진로성숙도2차→공동체의식3차 | -.195** | .011 | -.189** |

* $p < .05$, ** $p < .01$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45($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12($p < .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96($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63($p < .01$)으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74($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72($p < .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199($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189($p < .01$)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를 바탕으로 시점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그림 1]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본 연구에서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이 이후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이전 시점의 진로성숙도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 시점의 공동체의식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이전 시점의 진로성숙도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측정모델의 검증

| 모형 | χ^2 | df | p | IFI | CFI | RMSEA |
|------|----------|-----|------|------|------|-------|
| 연구모형 | 6521.56 | 237 | .000 | .908 | .908 | .060 |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합친 연구모형의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χ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9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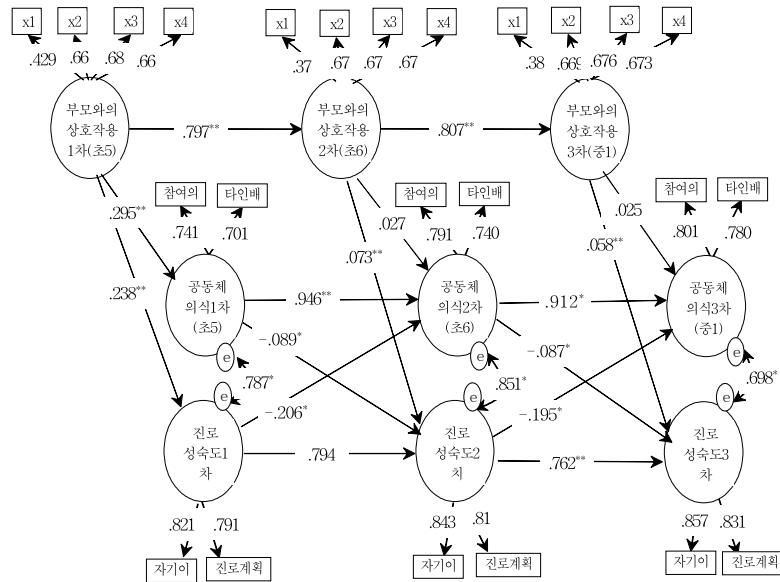
$^2=6521.56(p<.01)$ 으로 나타났으나 IFI=.908, CFI=.908, RMSEA=.06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경로 검증

| 경로 | 비표준화계수(B)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β) |
|-----------------------|-----------|------|------------------|
| 부모와의 상호작용1→공동체의식1 | .469** | .028 | .295** |
| 부모와의 상호작용1→진로성숙도1 | .399** | .027 | .238** |
| 부모와의 상호작용1→부모와의 상호작용2 | .662** | .026 | .797** |
| 공동체의식1→공동체의식2 | .979** | .008 | .946** |
| 진로성숙도1→진로성숙도2 | .810** | .007 | .794** |
| 진로성숙도1→공동체의식2 | -.201** | .011 | -.206** |
| 공동체의식1→진로성숙도2 | -.096** | .011 | -.089** |
| 부모와의 상호작용2→공동체의식2 | .053** | .027 | .027** |
| 부모와의 상호작용2→진로성숙도2 | .150** | .026 | .073** |
| 부모와의 상호작용2→부모와의 상호작용3 | .821** | .036 | .807** |
| 공동체의식2→공동체의식3 | .979** | .008 | .912** |
| 진로성숙도2→진로성숙도3 | .810** | .007 | .762** |
| 진로성숙도2→공동체의식3 | -.201** | .011 | -.195** |
| 부모와의 상호작용3→공동체의식3 | .052** | .028 | .025** |
| 공동체의식2→진로성숙도3 | -.096** | .011 | -.087** |
| 부모와의 상호작용3→진로성숙도3 | .124** | .028 | .058** |

* $p<.05$, ** $p<.01$

<표 11>을 바탕으로 시점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 2]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중단적 관계에 관한 모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의 모형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797($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807($p < .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46($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912($p < .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94($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762($p < .01$)로 안정적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89(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87(p < .01)$ 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206(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가 중학

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195(p < .01)$ 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5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295($p < .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6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027($p < .01$), 중학교 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025($p < .01$)로 둘 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5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238($p < .01$), 초등학교 6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73($p < .01$), 중학교 1학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58($p < .01$)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지와 이들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성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에서 실시된 표본으로 초등학교 5학년 7,287명, 초등학교 6학년 7,092명, 중학교 1학년 7,05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다음해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초5→초6: .945, 초6→중1: .912)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도 이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초5→초6: .796, 초6→중1: .763) 시점에 따라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한 이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초→초6: .797, 초6→중1: .807). 이런 결과는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진로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한 김영숙과 조한익(2016)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령,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논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의식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핵심과업으로 이 시기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획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라고 한 구지윤과 김유나(2016)의 논문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적 변화에 따라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체의식 초5→진로성숙도 초6: $-.074$, 공동체의

식 초6→진로성숙도 중1: -.072). 진로성숙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로성숙도 초5→공동체의식 초6: -.199, 진로성숙도 초6→ 공동체의식 중1: -.189).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부모와의 상호작용 초5→공동체의식 초5: .295, 부모와의 상호작용 초6→공동체의식 초6: .027,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1→공동체의식 중1: .025), 이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중학생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는 하나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의 상호작용 초5→진로성숙도 초5: .238, 부모와의 상호작용 초6→진로성숙도 초6: .073,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1→진로성숙도 중1: .058). 이런 결과는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되며 자율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진로태도의 성숙을 방해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박효희, 신정민 및 신진아(2006)의 연구와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해 비교한 김שמ와 심인선(2003)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진로상담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간 대화의 장이 부모의 가치관과 의사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로 사용되는 경향이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김태연(2011)의 논문에서는 부모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이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식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박은정 외(2016)의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밝힌 이정규(2006)의 연구와 김희수, 홍성훈 및 윤은중(2005)의 연구결과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후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높다고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초5~중1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에 걸쳐 수집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진로성숙도에, 진로성숙도가 공동체의식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잠재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의 가정에 대한 평가로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를 교차지연모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가에 초점을 두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개인차에 초점을 두어 시간축에 따른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잠재성장모형(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Duncan, Duncan, & Strycker, 2006)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내 변화와 개인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공동체의식은 다음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고 진로성숙도 또한 다음 시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이후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정도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지남에 따라서도 높은 안정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동안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하지만 이들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부적으로 유의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또한 마찬가지로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역시 큰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자아정체감이 확실히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진로성숙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지, 성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의 종단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중학교 이후 시점인 고등학교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안정성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가영, 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구지윤, 김유나(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김남선, 우룡(1995),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0(1), p. 93-110.
- 김동욱, 손원숙(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민규, 김주환,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봉환, 김아영, 차정은, 이은경(2007). 청소년용 진로 검사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8(2), 583-602.
- 김사라형선(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아동학회지**, 34(5), 43-59.
- 김선미, 심인선(2006).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영향요인 비교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지**, 16(1), 1-19.
- 김선숙, 안재진(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2014). **한국교육중단연구(1):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숙, 조한익(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김위정 (2016).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김중화, 유희철(2009). 청소년 수업교실 참여자의 또래관계가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1), 609-619.
- 김충기(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지**, 8(1), 143-160.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97-118.

- 김충기(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태연(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성격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2012).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01-119.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2016).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4(3), 1-27.
- 박제숙(2010). 한국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효희,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서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박효희, 신정민, 신진아(2006).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페널 학술대회 논문집**, 1, 871-889.
- 오지원(2013). 학급 공동체 의식이 집단 따돌림 관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숙경, 홍세희(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381-392.
- 유정이, 이영선, 박정민(2003). 청소년의 진로불안 장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1, 1-124.
- 이상인(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주희(2011).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채유정(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이희선, 선우현정(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2(6), 57-73.
- 장희선, 윤정이(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성에 미치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인과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동시효과 검증

- 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 161-177.
- Arbuckle, J. L. (2009). *Amos 18 user's guide*. Chicago: SPSS Inc.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96-202.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ou, C. 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37-5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 Pretty, G. M., Andrewes, L., & Collett, C. (1994). Exploring adolescents'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346 - 58.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97-118.

ABSTRACT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Simultaneous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s

Kim, Min Ji Cho, Han Ik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and the simultaneous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f the students from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to 1st grade in middle schools. The data were surveyed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2013.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were stable over time. In adolescence, the more the interaction with parents was the greater the influenc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career maturity. Second, the sense of commun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career maturity depending on the longitudinal changes over time. This seemed to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emphasiz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rather than with their parent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ausality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and interaction with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ollowing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Career Maturity, Longitudinal Relationship

논문 투고일: 2017. 09. 17.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